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한 몸으로 살아가며 [골로세서 3:12-17]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13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신실한 교회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루카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하나의 세례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 하나님께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골로세서 3장은 언약 공동체 삶에 관한 것으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3:2-3에 적은 내용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2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2-3).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훈련하고 실천합시다! 신앙의 여정은 이처럼 아주 작은 아이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도움으로 내 모든 힘을 다해 이 아이를 기독교 신앙으로 가르치고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어 아이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격려하고 보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공동체로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루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루카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그가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습시다.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소중한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 일하고 봉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통제하는지, 우리의 확신과 평안 그리고 보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발, 손 그리고 눈이 되어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평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완전한 평화, 값없이 주어지는 평화, 우리가 용서받았고, 회복되고, 구원 받았음을 아는 평안!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의 평안. 우리에게 그러한 평화가 부족하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을 신뢰합니까?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심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독재가 아닌 판단력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설계하시며 유지시키시는 분의 법에 따라 살고 있음

을 앞으로부터 나오는 평안. 이 평화가 공동체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습시다! 모든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몸, 모든 부분이 같이 성장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지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2-3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 모든 겹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2-3).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위와 같이 서약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이런 이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과 동기가 주님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거슬리진 않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헌신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서 교회에 관해 무엇을 듣나요? 그것은 긍정적인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루카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하길 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까? **부모에게는 첫 번째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한 몸으로 부름 받은 것처럼 각 가정들도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정을 감싸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서로를 하나로 연합하는 평화는 그분께 감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가운데 있는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감사할수록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이 더욱 지속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닌 명령입니다. 감사는 결코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의 삶을 통해 훈련해야 합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될 때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는 언약 공동체에 태어난 각 자녀에 대해 감사합니다.